

LG전자, AI·로봇분야 등 글로벌 R&D 인재 확보 팔 걷어

북미 테크 콘퍼런스

류재철 CEO 등 주요 경영진 참석
미래사업 전략·기술 경쟁력 소개
“결국 미래를 바꾸는 것은 인재”

“결국 미래를 바꾸는 것은 인재다. LG 전자는 더 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들과 함께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미 테크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냉난방공조(HVAC) 등 미래 성장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을 갖춘 연구개발(R&D)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LG전자는 이날 현지 R&D 인재와 박사급 전문인력을 초청해 회사의 미래 사업 전략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는 북미 테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스



류재철 LG전자 CEO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LG전자 우수 인재 채용 프로그램 ‘북미 테크 콘퍼런스’에서 HVAC, 모빌리티,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LG전자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탤포드대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UC버클리 등 미국 주요 대학·연구기관의 박사과 연구원을 비롯해 현지 빅테크 및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R&D 경력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LG전자에서도 미래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경영진과 기술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다. 류CEO를 비롯해 김병훈 최고기술

책임자(CTO), 송상호 최고인사책임자(CHO), 정기현 HS플랫폼사업센터장, 오세기 ES연구소장, 이상용 VS연구소장, 김영준 인공지능연구소장, 김동욱 SW센터장, 송시용 로보틱스사업센터장 등이 자리했다.

류CEO는 이날 엔지니어로 LG전자에 입사해 사업부장과 사업본부장을 거쳐 C

EO에 오른 자신의 경험도 소개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경영을 이끄는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류CEO는 “LG전자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높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가전과 올레드 TV, 텔레매틱스 등 기존 주력 사업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공유했다. LG전자는 상업용 HVAC와 모빌리티, 피지컬 AI 등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모빌리티를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성장 분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로봇 플랫폼과 로봇 지능, 데이터 역량을 결합하는 한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차량(AIDV)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을 기반으로 차량용 지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그동안 축적한 제조·생산 데이터와 글로벌 시장에 공급한 수억 대의

제품에서 확보한 고객·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피지컬 AI 사업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HVAC와 전장 분야의 기술력, 누적 10억대 이상의 핵심부품 제조 경험을 결합해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럼 계열사 및 로보틱스 자회사와의 협업도 활용한다. 자체 사업 역량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LG전자는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인재 확보 활동도 이어간다. 이달 9일부터 MIT와 케네디켄넬대, 미시간대, 퍼듀대, 일리노이대 어바나-섐페인, 위스콘신대 매디슨 등 주요 대학을 순차적으로 찾아 채용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로봇과 생산기술, 전기전자 등 분야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미래 성장사업을 담당할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정유 4사, 액침냉각유 사업 속도낸다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유 인증·실증
실제 제품공급 사례도 나오고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함께 국내 정유 4사의 액침냉각유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능 GPU 서버의 발열량과 전력 밀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공랭식을 보완할 액체 기반 냉각 기술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엔부브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OIL은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유를 개발해 서버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 운영사를 대상으로 인증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을 마치고 제품 공급에 들어간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액침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유에 서버를 직접 담가 열을 식하는 방식이다.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공기로 식하는 기존 방식보다 열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 고성능 GPU가 집적된 AI 데이터센터의 냉각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24년 415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약 945TWh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냉각에 투입되는 전력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SK엔부브는 2022년 미국 액침냉각 기업 GRC에 지분을 투자하며 국내 정유업계에서 처음으로 관련 시장에 진출했다. 2023년 SK텔레콤 데이터센터에 액침냉각유를 적용하며 상용화의 포문을 열었으며 최근에는 LG전자, GRC와 함께 액침냉각 솔루션 개발 및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LG유플러스 등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액침냉각 기술을 실증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네이버클라우드에 관련 제품을 공급했으며 에스오일은 고발열 GPU 서버 환경에서 데이터센터용 액침냉각 기술을 검증하고 있다.

액침냉각유 상용화의 관건은 냉각 성능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서버와 배터리 내부의 금속·플라스틱·고무 소재에 장기간 접촉해도 변형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정유사들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장비와 냉각유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과 실증을 거치더라도 액침냉각유가 정유사의 실적에 기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제품을 적용할 서버와 배터리 시스템이 확대돼야 하고 고객사의 관련 설비 투자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액침냉각유 사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고객사 수요가 늘고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돼야 한다”며 “현재는 기술개발과 협력체계를 이어나가면서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대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광재선 “100년 기업 위한 미래사업 육성”

(KG그룹 회장)

KG그룹 창립 41주년 기념식

‘KG모빌리티 플랫폼’ 출범 세리머니

“41년 신뢰와 도전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10년의 첫걸음을 내딛자.”

광재선 KG그룹 회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진행된 KG그룹 창립 41일주년 행사에서 100년 기업을 위해 미래 성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9월 1일 창립 41주년을 맞는 KG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창립 초기의 도전부터 자동차·철강·화학·금융·미디어·교육·문화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온 성장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10년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KG그룹 임직원 및 가족, 장학생, 협력사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KG그룹의 새로운 가족사가 된 ‘KG모빌리티 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광 회장이 KG모빌리티 플랫폼의 금장 명패를 그룹가



광재선 회장이 KG그룹 창립 4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KG그룹

족사명패함에 안착시키고 사기를 전달하면서 그룹의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공식화했다.

KG그룹은 KG모빌리티 플랫폼 출범을 계기로 자동차 제조 역량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가족사 간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고 축적된 기술과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도 발굴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온, 네오볼타 파워에 배터리 셀 공급… 美 ESS 사업 ‘청신호’

5년간 9GWh 규모 공급계약 체결

SK온은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대규모 배터리 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주로 북미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장기 수요처를 확보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률 상승과 실적 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SK온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SK온 관훈캠퍼스에서 미국 ESS 기업 ‘네오볼타 파워(NeoVolta Power)’와 ESS용 배터리 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SK온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네오볼타 파워에 총 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용 LFP와

우치형 배터리 셀을 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돼 네오볼타 파워가 출시할 ESS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네오볼타 파워는 미국 조지아주 팬더그래스에 생산시설을 둔 ESS 제조기업으로 미국 에너지 기술기업 네오볼타의 자회사다. SK온은 네오볼타 파워가 선보일 LFP 파우치형 배터리 기반 ESS 제품의 핵심 셀 공급을 맡는다.

5년간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서 미국 생산시설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용 하이니켈 배터리에 집중됐던 제품군을 ESS용 LFP 배터리로 넓히고 북미 고객 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사는 배터리 셀 공급을 넘어 ESS 분야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K온은 연내 별도 계약을 통해 네오볼타 파워 측에 추가로 9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셀을 사급 구조로 제공하고 네오볼타 파워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팩 제품으로 구매하는 방식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양사 간 사업 협력 규모는 총 18GWh로 확대될 전망이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의 미국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지 생산 역량과 고객 수요에 맞춘 배터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신규 고객과 사업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현대차그룹, 홍은희 수소사업본부장 영입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에너지 수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옛브리타니 페트롤리엄) 출신의 에너지 사업 전문가 홍은희 부사장(사진)을 신입 HMG에너지&수소사업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사업 경험과 전략을 갖춘 리더십을 확보하고, 에너지 및 수소 사업의 글로벌 확장과 사업화 추진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신입 홍 부사장은 시장 기회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온 글로벌 에너지 사업 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홍 부사장은 P&G 코리아, 한국수출입은행을 거쳐 18년간 bp에서 근무하며 석유, LNG, 수소, 암모니아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의 사업 개발, 전략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해 왔다.

특히 홍 부사장은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글로벌 에너지·수소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획·운영해 왔다.

현대차그룹은 홍 부사장의 실행력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미래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소 생태계 확산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